

서구, 추석 앞두고 주민생활 안정대책 강화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교통·안전·복지·의료 등 분야별 대책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24일부터 종합상황실 운영...생활밀착형 대응체계 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석 연휴를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구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재난·안전, 환경, 의료 등 31개 과제를 중심으로 명절 전 사전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연휴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와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행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지난 폭염으로 도심 일부 보행로의 예초 작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전까지 마복복개로 등 10개소의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도심권 보도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서구는 추석 전까지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여객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구조부와 전기·기계설비, 소화장비 등 분야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시설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귀성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가동한다. 광천터미널과 양동시장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한편, 주요 간지선도로의 불법주정차를 지도·단속한다. 서부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도심과 청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동별 일제대청소를 실시하고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무단투기 폐기물을 정비한다. 환경미화원과 노면청소차의 특별근무체계를 구축해 연휴기간에도 청소 민원에 대응하며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등을 집중 정비한다.

연휴기간에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청소·공원관리·환경오염·교통·재난재해·광고물·의료·위생·365민원 등 10개 상황반을 운영한다. 청소와 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안전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광산구의회, 2026년 의원연구단체 '3개' 구성편

민선 9기 구정 비전 실현, 7국 2실 2관 33과 국가 정책 대응력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광산구의회가 14일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활동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총 3개로 정책 및 시책 등의 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현장 조사, 각종 회의의 개최, 전문가 자문 등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

먼저 6명으로 구성된 '광산구 반도체산업 정책 연구단체'는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조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스마트 범

죄예방 안전도시 연구단체'는 4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 인프라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AI교육 및 미래인재양성 연구회(대표의원 이해경)'는 4명으로 구성됐고, 지역 교육 산업 여건을 반영한 AI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활동을 지속하며,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구정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공병철 의장은 "3개 연구단체가 내실 있는 연구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각 연구단체는 주제별 현안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과정에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산업 정책 연구단체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를 이어간다. 지역 기업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산구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

스마트 범죄예방 안전도시 연구단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설과 안전 인프라의 효과를 살펴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AI교육 및 미래인재양성 연구회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AI교육 방안을 살펴본다. 학교와 교육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의회 전경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나주시 공고 제2026 - 1469호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열람 공고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90-5번지 일원(왕곡면 송죽리 폐기물중간처리 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나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왕곡면 송죽리 산90-5번지 일원	-	증99,939	9,939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공람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입안면적(㎡)			변경 사유
			당초	조정	조정후	
0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90-5번지 일원	7,725	증2,214	9,939	○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입안시 제시된 사도 개설계획 구간을 사업대상지에 편입하는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변경(7,725㎡⇒9,939㎡)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나주시 도시과, 왕곡면, 공산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9. 9.(수) ~ 2026. 9. 30.(수)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 직접 또는 전자우편(jh9388@korea.kr)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싹틔줄

생강을 살립시다